징역 20년 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 소방관들

베네수엘라 소방관들이 장난처럼 찍은 영상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게 발단이 돼 최고 징역 20년에 처해질 위기에 몰렸다.

2분4초 분량의 영상은 누군가에게 이끌려 어슬렁어슬렁 소방서에 들어서는 당나귀가 등장하면서 시작된다. 당나귀는 남미에서 멍청함의 상징처럼 여기는 동물이다.

▲ 베네수엘라 소방관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오른쪽)을 당나귀에 비유한 영상때문에 징역 20년에 처해질 위기에 몰렸다.

소방관들은 소방서로 들어오는 당나귀를 촬영하며 "동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우리 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고 말한다.

어디론가 향하는 당나귀를 쫓아가며 "마두로 대통령이 장비와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직접 우리를 방문했다." 며 "지금 소방서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계신다." 고 말했다. 당나귀가 소방서 뒤편의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는 영상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풀까지 챙겨보고 계신다." 며 "상태가 좋은지(풀이 먹을 만한지) 직접 시식까지 하신다." 고 설명을 곁들였다.

풀을 뜯던 당나귀에게 소방관들은 "화장실과 부엌도 살펴보시죠." 라며 안내를 시작한다.

소방관들은 "대통령이 소방대의 시설을 다시 살펴보고 계신다." 며 "그런데 왠지 오늘은 말이 없으시다. 입을 꾹 다물고 계신다." 고 말했다.

동영상이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지면서 바로 문제가 됐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 도를 넘었다면서 2명 소방관을 구속 기소했다.

현지 언론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있다." 며 "사법부가 유죄를 인정할 경우 두 사람은 옷을 벗는 건 물론 최장 20년 징역을 살 수 있다." 고 보도했다.

인권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로스안데스대학의 인권단체인 '인권 전망대' 는 "단순한 장난을 갖고 소방관들을 사법처리하겠다는 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매우 위험한 발상" 이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평범한 주방용품 사진이 스타워즈 주인공으로

한 젊은 예술가의 사진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

체코 프라하에서 활동하는 올해 만 20세의 젊은 예술가 크리스티앙 멘사는 가정의 주방용품들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찍는다. 하지만 그의 작업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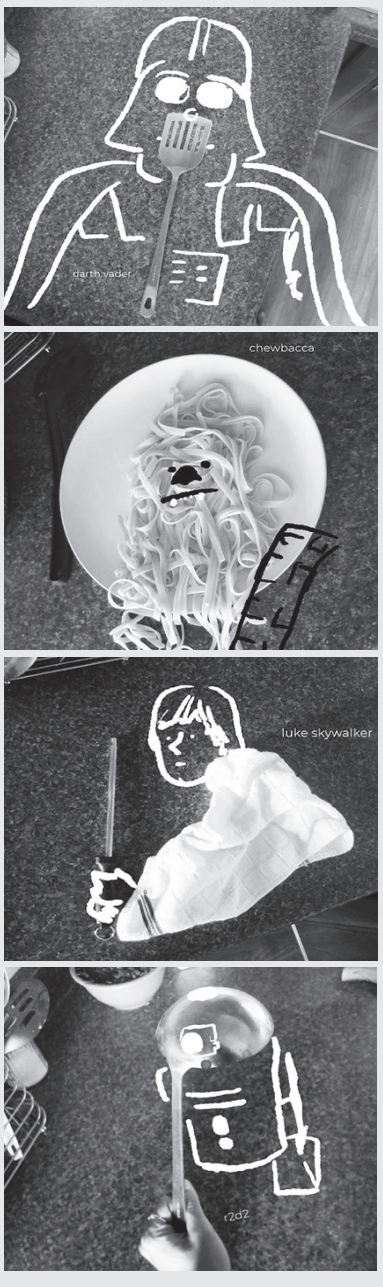
그는 사진 위에 장난스럽게 그림을 그렸다. 그러자, 평범한 부침개 뒤집개가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가 되고 스파게티 면발이 추바카로 변신했다.

크리스티앙은 SNS를 통해 "그때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스마트폰으로 즉석에서 메모를 즐겨한다.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문득 떠오른 스타워즈 이미지로 그림을 그린 것" 이라고 밝혔다.

그저 낙서 같은 그의 작품은 미국 네티즌들에게 알려지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스타워즈 팬덤이 강한 미국에서 그의 낙서 작품이 인기 있는 팬 아트로 발전했다.

작품이 유명해지면서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팔로워가 수백명에서 5만 4,000명을 훌쩍 넘겼다.

그의 작품 일부를 감상해 보자.



40년 경력의
주인이 직접 수리함
부에나팍/플러튼/라하브라/애나하임
한미 자동차 바디/수리
Hanmi Auto Enterprise
Collision & Repair
저렴한 가격 / 정확한 수리
-해병전우 환영-
• Towing & Rent Car 알선
• 보험 수리 전문
• 노련한 바디맨의 완벽한 수리
• 최신 머신에 의한 Color Match
• FREE ESTIMATE
AAA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FARMERS INSURANCE USAA GEICO PROGRESSIVE Liberty Mutual. StateFarm 21st Century insurance esurance MERCURY INSURANCE GROUP AUTHORIZED AGENT MetLife Nationwide Insurance
〈 미국내 많은 메이저 보험 클레임 〉
Cell 714.851.7556
714.680.9273
4355 Artesia #B, Fullerton, CA 92833
Dale + Artesia 플러튼 공항 뒤쪽(활주로)